

현안과제연구

Issue Report

2015. 04. 20

CONTENTS

< 요약 >

1. 문제제기
2. 연구내용 및 내용
3. 공모방식의 타당성
4. 조형물의 영역 및 정의
5. 원 계획에서의 제작 방향
6. 항목별 검토 및 제안

홍예공원 상징조형물 설치계획 수립

권영현
충남발전연구원 문화관광디자인연구부 선임연구위원,
yhkwon@cdi.re.kr

본 연구의 목적은 홍예공원에 조성되는 상징조형물을
현상공모방식으로 진행함에 있어 공모방식을 위한 사양 및 선정
절차를 제시하는 연구임.

요 약

- 본 연구에 따르면 홍예공원에 설치되는 상징조형물은 원안인 시공사의 직접 시공이 아닌 공모방식을 통해 예술성을 제고하고 지역 상징성이 부각되는 안이 도출되도록 하여야 함.
- 상징조형물은 설치되는 장소 및 목적, 조성 비용에 따라 그에 적합한 유형 및 장르로 설치되어야 하며 홍예공원 조형물의 설치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제안 함.
 - 조형물의 콘셉트는 충남의 새로운 웅비로 하며 부분적으로 환황해권 시대로의 새로운 비상, 포용에서 움트는 창조, 결속으로 이루어 낸 희망으로 제시함.
 - 설치 장소는 원안의 4곳 대신 3곳으로 축소하며 산책로가에 설치하는 대신 주차장 입구 및 결절 교차지점을 제안함.
 - 조형물의 유형은 3작품 모두 예술성 있는 상징조형물, 또는 1작품은 상징조형물로 2작품은 환경조형물로 제안함.
 - 규모는 공원 내에 조성되는 조형물임을 감안, 존재감을 보여주는 동시에 위압감을 느끼지 못하는 규모로 조성함.
 - 조성비용은 원 계획에서 제시된 금액 보다 증액하며 진행비를 추가, 세 작품에 차등을 두어 책정함.
- 이상과 같이 작품 수, 작품 유형, 규모 및 조성비용에 따라 공모방식을 달리 적용하여야 함.
 - 응모자격에 대한 방안은 조성비용의 확보 여부에 따라 전국 대상공모 및 지역제한 공모로 방식을 정할 수 있음.
 - 시상금 시상 방식은 선정작에 기존의 창작비를 모두 지불하는 방식과 창작비와 시공비를 분리하여 당선작(인)에게 창작비를 지급하고 시공은 시공사에서 진행하는 방안을 제시함.

- 공공 공간에 설치되는 조형물 등 공공디자인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역 환경에 대한 미적 수준향상 요구가 증대됨.
 - 2008년 지자체 행정에 공공디자인이 도입된 이후, 공공건축을 비롯한 공공 공간 및 공공시설물, 공공 매체의 미적 수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과거 ‘미술장식품’ 범주로 건축물이나 대단위 단지 구성에 있어 부수적으로 설치하던 장식물에서 실질적인 지역의 가치와 효용성을 중시하는 경향으로 선회하고 있음
 - 조형물의 조성 절차가 과거 공급자인 관 주도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단지 결과물 뿐 아니라 조성 계획 및 과정에서의 지역 주민의 참여, 지역 이미지 반영 등이 주요 필수 항목이 되고 있음
- 지역에서 조성되는 조형물이 체계적인 설치 규정, 선정 과정 및 설치 과정에서 감독이 소홀한 채 추진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문제화되고 있음
 - 공공에서 주관하는 조형물 설치와 관련한 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설치의 타당성 및 효용성, 설치작품 선정 과정에서의 불협화음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음.
 - 무분별한 조형물 설치의 당초의 기대와 달리 오히려 주민 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사후관리 부실로 파손되거나 훼손되어 방치된 채 시각적 공해물로 전락하는 등 예산 낭비와 경관 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본 연구는 내포신도시의 대표공원인 홍예공원에 설치되는 상징조형물이 상징성 및 예술적 수준의 향상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로 상징조형물의 설치 경향 및 설치장소의 여건을 분석하여 공모방식을 제안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본 연구는 내포신도시를 대표하는 공공공간인 홍예공원 내에 설치되는 조형물에 지역성 및 심미성을 보강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임.
 - 홍예공원 조형물은 내포신도시의 역사성 및 장소의 특징을 담아 충남도청 소재지로서의 의미를 부여하고 연결 공원인 보훈공원으로 유도하는 기능을 갖추어 시각적 인지성 및 연결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음.
 - 당초 시공사에서 홍예공원 실시설계(안)에 포함되어 있는 상징조형물에 대한 디자인(안)을 내포신도시개발자문단에 의한 자문 및 선정으로 결정하려 했으나 이와 같은 방식으로는 상징조형물로서의 충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단순한 공원 시설물 수준으로 조성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심미성과 지역적 상징성이 담길 수 있도록 공모방식으로 선정하는 방식이 제안되었고 홍예공원 조경실시 최종보고에서 현상공모를 통한 선정방식이 최종 보고 되었음.
- 이에 따라 홍예공원 실시설계(안)에서 제시되었던 최종안을 근거로 현상공모를 할 수 있는 기본 방향 및 요건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내용임.
 - 지자체를 포함한 공공에서 설치하는 조형물의 설치에 따른 경향과 문제점의 분석을 통하여 홍예공원 조형물이 갖추어야 할 물리적·예술적 요건을 구비한 설치·조성 방안을 제시하려함.
 - 이를 위하여 당초 시행사의 계획과 달리 공모방식으로 전환하려는 타당성을 찾아내고 공공 조형물의 설치에 따른 제도 및 경향을 비롯하여 설치 대상지의 파악과 본래 계획안의 설치 비용 및 규모 등을 토대로 하여 공간과 여건에서 설치장소의 타당성 및 대안, 조형물의 유형, 조형물의 규모 및 개수, 조형물의 콘셉트 등 현상 공모의 기틀을 마련하려 함.

- 지자체에서 공공조형물 설치를 설치하는 경우 관련 규정이 없어 선정의 공정성 및 작품의 적합성 및 심미성에 대한 기준 및 절차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 지자체에서는 공공장소에 지역 이미지가 담긴 예술 작품(공공조형물)을 설치함으로써 지역 정체성을 창출하고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여 지역의 격을 상승 시키려 하고 있음.
 - 그러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공공조형물(미술장식품, 미술작품 범위 포함)의 설치나 유지·관리에 관한 별도 규정이나 주민의견 등 주민 참여 절차 없이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거나 유지·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해 흉물로 전락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 공공조형물 관련 조례 및 규칙이 제정되어 법제처의 지방자치법규시스템에 등재된 된 지자체는 14곳에 불과하며 미술작품과 미술장식품을 포함하여 47개의 조례와 3개의 규정 및 규칙에 그치고 있음.

〈표1〉 지자체의 조형물 및 관련 규정 제정 현황

구분	공공조형물 규정		미술작품 설치규정		미술장식품 규정		계	
	조례	규칙	조례	규정	조례	규칙	조례	규정 규칙
건수	13	1	1	1	32	1	47	3

출처 : 법제처 자료

- 조형물 설치가 별도의 규정이 미비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진하였거나 주민들이 공감하지 못해 철거하거나 일상생활의 피해 유발 및 유지·관리가 소홀한 결과 흉물로 전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사전 타당성 조사나 주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가 생략된 채 건립되어 주민들이 공감하지 못하거나 작품 선정 시 현상공모 방식을 거쳤다고는 하나 선정과정의 비리 및 담합 의혹이 제기되며 통행불편 및 미관 저해 등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표2〉 지자체의 조형물의 문제점과 관련된 보도 사례

2010년 11월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철쭉동산에 설치된 ‘피겨여왕 김연아’ 선수동상이 기술과 실적이 없는 업체에 동상 설계를 맡긴 후 설계와 다른 조형물이 나왔고 총 사업비가 5억 2천만 원 이지만 5천만 원이면 제작이 충분하다고 했음(’12. 9. 25. 온라인 중앙일보)
예산군에서 2007년 설치한 조형물과 조각작품 공모전에서 작가와 심사위원이 담합했다는 의혹, 당시 군의원인 A씨는 친분 있는 작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심사위원과 같은 협회에 활동하는 작가의 작품을 선정하는 형식적인 공모전을 진행(’12. 5. 4. 세계일보)
2009년 D건설에서 20억을 기부 받아 안산시 수인산업도로변에 설치한 조형물 ‘안산소나타’는 설치 당시 안산시청 A과장이 설치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구속되는 등 물의를 일으켰으며 기능적으로도 조명기능 상실, 운전자 시야 방해, 지속적인 부식과 균열 등의 문제로 설치 4년만에 철거가 결정(’13. 4. 17. 노컷뉴스)
2006년 제주시가 시 승격 50주년을 기념해 공모한 상징 조형물의 심사결과가 심사위원과 당선 작가 간에 공모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06. 3. 29. 세계일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세종정부청사에 설치할 미술작품을 공모하였는데 1단계 12점(28억원)의 선정작 중 ‘햇살 담은 나무’가 성남시청에 설치된 조형물과 쌍둥이처럼 닮아 모방, 표절 시비는 물론 심사방식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12. 8. 17. 디트뉴스)

- 공공조형물의 설치는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1990년대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0년대에는 1,813점이 설치되는 등 최고조를 보이고 있음.
 - 해당 지역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지역 상징성을 담아 조성되는 지자체의 공공조형물은 주민에게 수준 높은 미술품과 접할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 전국 공공조형물의 설치 사례를 보면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인 1980년대 이전에는 두 자리 수에 머물다가 1990년대에 288점이 설치되어 상승세가 시작되어 2000년대에는 1,813점을 조성하기에 이르며 2010년대에는 2014년 7월 기준으로 1,066점이 설치되어 급상승 하고 있음.
 - 조형물의 유형을 살펴보면 상징조형물이 1,553점, 환경조형물 509점, 기념비 391점의 순서를 보이고 있어 상징조형물이 주류를 이룸.

〈표3〉 연대 및 유형별 공공조형물 조성 현황

연도 \ 유형	동상	기념탑	기념비	상징탑	환경조형물	상징조형물	기념조형물	기타	계
1959년 이전	4	5	9	-	-	2	-	-	20
1960년대	2	11	14	-	-	-	-	-	28
1970년대	9	6	26	1	-	1	-	2	45
1980년대	8	15	21	1	5	12	1	9	74
1990년대	24	30	64	3	17	103	9	38	288
2000년대	867	54	130	3	274	910	155	200	1,813
2010년 이후	844	31	50	23	199	509	32	192	1,066
확인불가	-	4	77	9	14	16	52	35	200
계	158	156	391	2	509	1,553	259	476	3,534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자료, 2014. 9. 24

- 지자체 별 설치된 조형물 수량을 살펴보면 부산이 547점으로 가장 많은 수의 조형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남이 391점, 충남이 345점으로 세 번째로 많은 조형물을 보유하며 그 뒤를 잇고 있음.

● 공공조형물의 조성 금액은 1점당 평균 1억 8000만원으로 고액의 비용이 소요되고 있음.

- 2013년 기준으로 전국에 건립된 공공조형물은 약 3,534점이며 이중 설치 금액의 확인이 가능한 대상 2,411점의 설치 금액은 4330억 6500만 원으로 1점당 평균 금액은 1억 7900만 원에 달하고 있음¹⁾.
- 이는 건축물에 설치된 미술 장식품의 사례에서 미술 장식품 중 비중이 높은 유형인 조각 작품 건당 설치 금액이 1~2억 원이 소요된 경우가 가장 높은 비중(17.6%)을 나타내고 있는 결과²⁾와 일치하고 있음.

● 공원 내에 설치되는 상징조형물의 경우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 설치에 해당되지 않아 문화예술 진흥법 및 미술장식품 설치 업무 처리지침에서 규정한 절차를 준수할 의무는 없으나 공공장소에 조성되어 지속적으로 공공에게 노출되는 공적 자산이기 때문에 공모절차를 거치는 방식이 타당함³⁾.

● 홍예공원 내에 설치될 예정인 상징조형물은 수량은 총 4점이며 설치 금액은 총 1억2000만 원으로 한 점당 평균 3000만 원으로 나타남.

- 이 금액은 일상적인 조형물의 가격에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설치 금액의 확충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엄격하고 제약이 많은 공모 방식 보다는 유연한 방법으로 공모의 효율성을 늘리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1) 국민권익위원회 자료, 2014. 9. 24

2) 충남발전연구원, 충남도청 신청사 상징조형물 설치계획 수립, 2011. 3. 30.

3)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을 신축 또는 개축 할 시 1/1000~7/1000에 해당하는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하고 그 절차는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 설치 업무 처리지침'에 명시되었음.

- 상징조형물과 관련된 용어가 광범위하게 파생되어 사용되고 있음.
 - 본 연구의 주제가 되는 상징조형물과 관련된 용어는 조형물, 조형예술품, 환경예술품, 환경조형물, 환경조각, 디자인조형물, 기념조형물, 기념탑, 기념비, 상징탑 등 그 의미를 알기 어렵게 혼용되어 사용하고 있음.
 - 관련 용어 중 대부분은 영역 및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조성 목적을 강조하거나 조성 조형물의 유형 및 형태를 제시하거나 활용 주체에 따라 유리한 형태로 조합하거나 변형하여 활용되고 있음.

〈표4〉 조형물 관련 용어의 정의

구분	정의
조형물	여러 가지 재료를 이용하여 구체적인 형태나 형상으로 만든 물체로서, 사물을 통한 매우 구체적인 인간 활동의 감각과 지각의 결과물이다.
환경조형물, 환경조각	기존의 미술영역의 범주 안에서 미술가의 관심범위를 환경보존과 자연보호에 맞추고, 환경과 자연을 소재로 한 조형물, 조각 옥외공간에 설치된 모든 조각과 구조물들을 통칭한다. /예: 공공조각 분수조각 설치조각 기념비 등
기념비	어떤 인물이나 일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비이다 ⁴⁾ .

-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 용어의 선별 및 사용이 필요함.
 - 조형물이란 인간의 예술행위에 대한 산물로서 구체적인 형상을 갖춘 물체를 말하며, 용어의 앞에 수식어 및 접두어가 결합되면서 파생되고 있음.
 - 사용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여 목적에 적합한 용어를 선정하지 않으면 조형물의 설치 의도와 목적, 참여 자격 및 분야를 비롯하여 선정 심사 후에도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

4) <http://ko.wikipedia.org>

- 홍예공원에 조성되는 상징조형물의 구성과 관련된 선행 연구로는 '충남도청 이전신도시 공공디자인 개발사업 결과보고서'에서 내포신도시의 공원에 조성되는 공원의 기본 방향을 비롯하여 홍예공원 상징조형물의 디자인 기본방향이 제시되고 있으며, '홍예공원 조경실시설계'에도 구체적인 디자인을 비롯하여 장소 수량이 명시되어 있음.
- '충남도청 이전신도시 공공디자인 개발사업 결과보고서'에서는 내포신도시를 대표하는 상징물로서 상징성이 강한 인상을 전달하도록 하고 있음.
 - 홍예공원의 상징조형물은 공원의 상징물이자 내포신도시 전체의 상징성을 형성하는 장소이므로 뛰어난 아이디어와 계획의 완성도가 전제되어야 하며, 도민참여를 기반으로 아이디어 공모 및 전문가 공모를 실행하여야 함.
 - 내포신도시의 정체성을 반영하고 만남의 장소(랜드마크)가 될 가능성이 크므로 상징성이 강한 인상을 전달하여야 하며, 형태나 재질적용에 있어 단순간결하고 고급스런 분위기로 조성되도록 주문하고 있음.
- '홍예공원 조경실시설계 중간보고'에서는 내포신도시 전체의 역사성 및 특징을 담을 수 있는 상징조형물의 구체적인 디자인 안을 제시하였음.
 - 내포신도시의 역사성 및 장소의 특징을 담아 충남도청 소재지로서의 의미를 부여하고 연결 공원인 보훈공원으로 유도하는 기능을 갖추어 시각적 인지성 및 연결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각기 4곳의 장소를 선정하였음.
 - 조형물의 형태는 금속 관재를 이용하여 표면은 우레탄 도장으로 마감한 모던한 스타일의 파형 울타리형 안과 회전 진자의 형태의 안 2종류로 이 중 울타리 형은 동일한 조형물을 3곳에 각기 설치하는 안을 제시하였음.

- 홍예공원 상징조형물의 조성 방향은 구체적으로 제안된 원 계획과 공원에 조성되는 상징 조형물의 경향을 토대로 상징조형물의 설치 목적과의 합일성, 설치 공간의 여건, 예산액, 현상공모 방식에서의 제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①상징조형물의 디자인 방향 및 콘셉트 제시, ②상징조형물 설치 장소 및 개수 ③설치장소의 타당성 및 대안, ④조형물의 유형 및 규모, ⑤설치 비용, ⑥현상 공모 방식 순으로 제안함.

1. 디자인 방향 및 콘셉트

- 공원 내에 조성되는 조형물은 공원의 입구, 중심광장 등에 설치되어 이용객을 시각적으로 유인하거나 활동을 멈춘 이용객에게 장소의 특징을 전달하는 기능을 요구하며 홍예공원 상징조형물의 디자인 방향은 다음과 같음. 이와 같은 디자인 방향은 공모지침 및 평가 항목에서도 일관성 있게 활용되어야 함.

상징성	내포신도시의 대표공원의 상징조형물로서 좁게는 내포신도시에서 넓게는 충청남도를 아우르는 대표적인 아이덴티티의 표현
심미성	공원시설물의 범주의 머무르지 않도록 예술적 가치를 담기 위한 치밀한 기획과 예술품으로서의 독창성과 창작과정을 요구
친밀성	공공공간에 조성되는 예술품으로서 주민과 관람객에게 친근감과 심리적인 힐링 기능을 하며 장소를 기억하도록 기획
친환경성	내포신도시가 추구하는 개념과 공조하며 사용 재료를 비롯하여 주변과의 형태적, 색상적 순응을 포함
장소성	상징성을 요구하는 유형이므로 의미 있거나 동선 또는 시선이 집결되는 장소에 설치
지속성	유지관리가 상대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장소를 감안하여 파손 및 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획

- 디자인 모티브가 되는 개념은 홍예공원 조성사업에서 제시된 개념 중 형상화할 수 있는 언어 및 형상 이미지를 발췌하여 활용하며 보훈공원이 새롭게 계획되어 홍예공원의 인접하여 조성됨에 따라 보훈공원에서 다루고 있는 호국충렬 및 지역의 역사성을 소재로 하는 콘셉트는 제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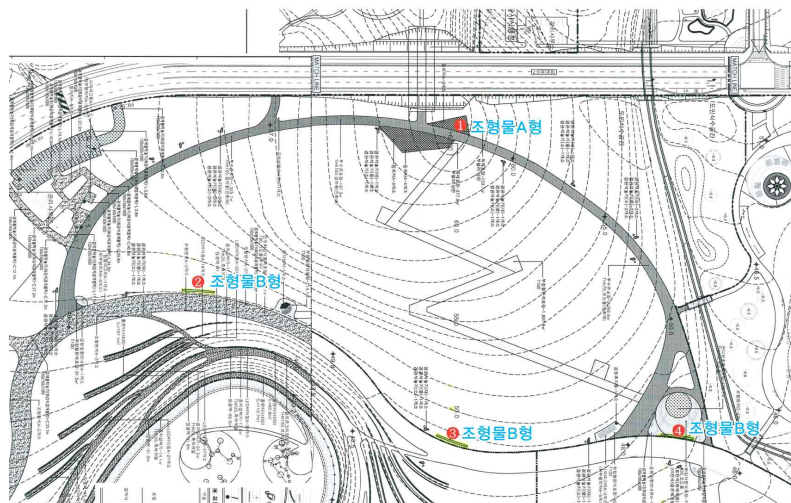
지명+도청이전	주산의 명칭을 용봉산(용의 몸, 봉황의 머리)+충남의 새로운 중심 “새로운 중심 내포에서 힘찬 웅비”
21세기충남의 목표	21세기 충남의 새로운 목표와 미션 “환황해권 시대로 향해의 시작”
포용과 창조	다양한 문화와 정신을 수용하고 어우러진 곳 “포용에서 움트는 창조”
결합	홍성과 예산의 결속을 넘어 15개 충남 시군의 연대 “결속이 이루어낸 희망(무지개)”

- 홍예공원 상징 조형물의 콘셉트는 “충남의 새로운 웅비”로 하여 상징조형물의 포괄 주제가 되도록 함.
 - 부분적인 개념으로는 ‘환황해권 시대로의 새로운 비상’, ‘포용에서 움트는 창조’, ‘결속으로 이루어낸 희망’으로 하고 각 조형물에 반영되도록 함.
 - 형태의 모티브로는 용과 봉황, 태극의 개념적 표현, 무지개, 결합, 향해 등

2. 설치 장소 및 개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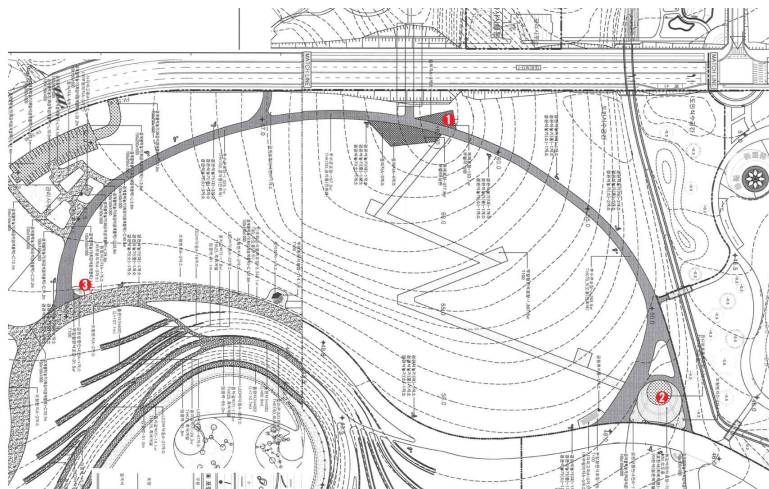
- 원 계획에서는 공원 내의 지표점을 중심으로 보훈공원 연결 지점①, 산책길 중 벽형 2곳②③, 시각적 결절점④인 4곳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

〈그림1〉 상징조형물 설치 위치(원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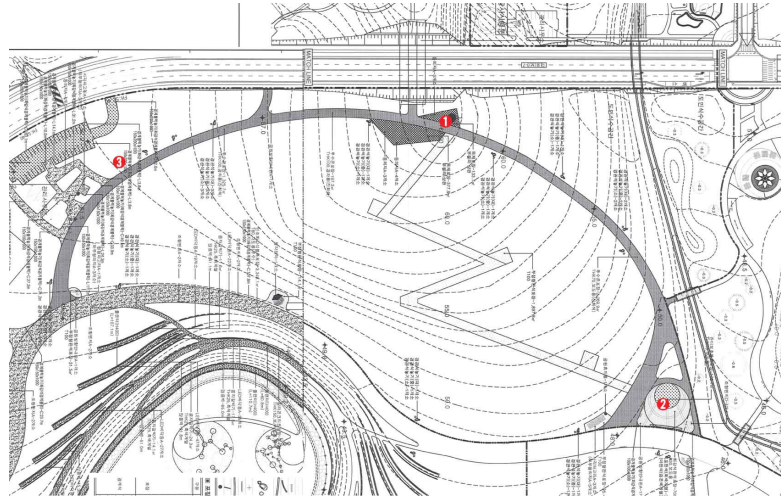
- 이 계획안에 따르면 해당 상징조형물이 방문객에게 인지되기 어려우며 각 조형물마다 개별적인 콘셉트를 부여하기 어려움.
 - 이 계획은 상대적으로 레벨이 높으며 보훈공원과 연결되는 통로 지점에서 방향지시 역할을 하기 위한 기능과 주 산책로 상에 배분하여 설치하는 계획으로 조형물이 규모나 작품성이 현저하지 않으면 주목성을 갖기 어려움.
 - 설치 계획인 상징조형물의 콘셉트가 제각기의 방향이 아닌 서로 연계된다면 동일한 범주의 콘셉트를 4개의 개별 조형물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름. 원안은 2유형으로 하도 한 유형은 동일한 작품을 3 장소에 설치하는 안임.
 - 상징조형물의 설치하기 위한 예산은 1억 2000만 원으로 4곳에 분배한다면 평균 3000만 원에 해당하여 저급한 작품으로 조성될 가능성이 높음.
- 대안 1 : 보훈공원과의 연결 지점과 산책길 교차지점은 원안대로 하되, 산책길에 연달아 설치하는 2군데 장소 대신 왼편 교차지점 1곳에 설치하는 안.
 - 이 안은 공원 내의 조형물은 차도나 일반 보행로와 같이 운행 중 또는 보행 중 조망하기 보다는 정지하거나 보행속도를 늦추어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산책로의 도중 보다는 길이 교차하거나 시선이 집중되는 장소가 적합함. (설치 수량을 4에서 3개로 줄이는 전제)
 - 지형적으로도 보훈공원과의 연결지점은 홍예공원 영역 중 정상부이기 때문에 설치 장소로 적합하며 왼편 교차 지점 또한 적합장소이며 보훈공원 연결부 좌우 산책로는 경사가 있어 설치가 적합하지 못하나 왼편 교차 지점은 완만한 평지이기 때문에 적합함.

〈그림2〉 상징조형물 설치 위치 대안 1



- 대안 2 : 대안 1과 동일하나 왼편 교차지점 대신 주차장에서 공원 내로 진입하면서 바라보이는 장소에 설치하는 안.
- 이 공원은 출입하는 경로가 다양하지만 주차장을 통해 입장하는 방문객을 타겟으로 하여 상징성을 부여하는 안임(주차장을 통해 입장하는 이용객은 외부 관광객, 다수의 단체 방문객, 공식적인 행사에 참여하는 인사로 판단함.)
- 지형적으로도 주차장을 조성할 정도의 평지이기 때문에 설치 장소로 적합함.

〈그림3〉 상징조형물 설치 위치 대안 2



4. 유형 및 규모

- 원 계획에서의 상징조형물 유형은 상징성을 담은 조형물보다는 시설물 성격에 가깝기 때문에 의미를 담기가 어려움.
- 4곳에 설치되는 상징조형물을 2가지 형태로 하여 한 가지 형태는 3곳에 동일하게 연속 배치하게 되면 상징성을 담은 조형물이기 보다는 새로운 개념의 시설물로 인식하게 됨.
- 동일한 유닛인 스테인리스 스틸 관재의 배열, 원형띠의 배열은 이른바 작품성의 투입보다는 이른바 CAD를 활용한 디자인 수월한 안으로 시공이 용이하고 저렴한 평범한 형태로 조성되어 조형적인 가치측면에서도 떨어지게 됨.
- 이러한 시설물에 근접한 조형물은 규격에 제한을 받지 않게 되어 A형의 경우 가로, 세로, 높이가 2,500cm, B형의 산책로와 맞닿은 길이가 3,370cm에 이르는 규모를 구상하고 있음.

〈표5〉 원 안 조형물의 유형 및 규모

종류 \ 항목	규격(깊이,폭,높이)	재료	도장재	유형	수량
A형 (입체)	2540*2540*2500	STL판재, 판재	우레탄	설치물에 근접	1
B형 (울타리)	1300*3370*1800	STL판재, 판	우레탄	설치물에 근접	3

- 공원에 조성되는 조형물은 포괄적 개념인 상징조형물을 비롯하여 상징탑, 환경조형물, 기념조형물 및 기념탑 및 동상이 해당됨.
- 이와 같은 조형물의 구분은 조각, 조소와 같은 순수 미술 장르에 근접성, 표현 방식의 구체성, 규모와 관련이 있음.
- 이는 설치 장소의 성격과 연관되어 고 비용이되 격조 있으면서 전통적 분위기, 혹은 전통적인 예술 장르를 벗어난 동시대적인 양식을 구사하여 주민과 친근한 개방적인 환경 등 종합적인 공원 계획의 콘셉트와 일치하여야 함.
- 투입되는 창작비중과 재료 및 가공비용의 계획이나 공모방식의 방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됨.

〈표6〉 유형별 조형물의 성향 및 적합성

유형 \ 항목	주제	성향	적합성
동상	장소와 관계된 구체적 인물, 사건	구체적, 전통적 표현	부적
기념탑	장소와 관계된 구체적 사건	규모, 전통적 표현	부적
기념비	장소와 관계된 구체적 사건	상징적, 전통적 표현	부적
환경조형물	장소의 유래 및 개념	추상적, 현대적 표현	적합
상징조형물	장소 및 사건의 유래 및 개념	폭 넓은 장르 수용	적합
기념조형물	장소와 관계된 구체적 사건	폭 넓은 장르 수용	부적

- 홍예공원 상징조형물의 유형은 설치 예술품을 통한 장소의 격조 유지와 이용객들에게 친밀감을 주는 기능의 균형을 갖추어야 함.
- 의도하는 콘셉트와 높은 예술성을 갖춘 조형물로 조성할 경우 여러 점의 콘셉트 부여 및 배분에 있어 어려움과 소요 비용 및 절차, 시기의 소요 부담이 큼.
- 전통성을 탈피한 상징조형물(엄밀히 환경조형물 부류)인 경우 친밀성, 상대적 비용 절감이라는 장점은 있으나 시대에 따른 예술성 관점의 차이로 작품의 지속성에 문제가 예측됨.

- 상징조형물의 규모는 조형물의 장르 및 재료, 조성 비용과 관련 있으나 공원 내에 조성되는 조형물임을 감안하여 존재감을 보여주는 동시에 위압감이 없도록 하며, 환경 설치물인 경우 큰 규모로 구상할 수 있음.
- 상징 조형물의 유형에 대한 구상 안은 1안의 경우, 세 작품 모두 예술성의 성향이 높은 상징조형물로 하며 충남 또는 내포신도시에 해당되는 콘셉트를 부여하는 안이며, 2안의 경우 상징조형물 1점과 환경조형물 2점으로 구성하여 상징성의 집중과 공원의 성격을 보다 유연하게 하는 안임.

〈표7〉 상징조형물 설치 유형 및 규모/단위 cm

종류\항목	A형	B형	C형
1안	상징조형물		
규모	400*400*600	350*350*500	350*350*500
2안	상징조형물	환경조형물	환경조형물
규모	400*400*600	600*600*1000	600*600*1000

5. 설치 금액(안)

- 원 계획에서의 상징조형물 조성비용은 낮게 책정되었으며 현상 공모방식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설치 금액(사업비)의 증액이 필요함.
 - 원 계획에서의 상징조형물의 디자인 및 시공 전 과정을 시공사에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구상하여 4점의 설치에 소요되는 금액을 총 1억 2000만 원(한 점당 평균 3000만 원)으로 책정하였음.
 - 이 금액은 공공기관 상징조형물 조성 비용의 평균치인 1억 7900만 원의 1/6 수준으로 조형미나 지역 정체성이 충분히 반영된 수준작을 기대하기 어려움.
 - 여기에 조형물의 선정을 현상공모 방식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진행비의 추가 책정이 필요함.
- 설치 금액에 대한 구상 안은 1안은 상징조형물과 환경조형물이 복합안에 대한 금액 구상으로 원안의 총금액인 1억 2000만 원에서 상징조형물로서 최소한의 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금액으로 증액하고 세 작품에 차등을 두며 현상공모에 따른 비용을 추가로 증액하는 안임,

- 2안은 세 곳 모두 상징조형물로 정상적인 작품수준의 확보를 위해 세 작품 모두 증액하며 마찬가지로 진행비를 추가로 확보하는 안임.

〈표8〉 상징조형물 설치 비용 (안) /단위 : 만원

종류 \ 항목	A형	B형	C형	진행비	총비용	비고
1안	10,000	7,000	7,000	1,000	25,000	13,000만원 증액
2안	18,000	12,000	12,000	2,000	44,000	32,000만원 증액

- 3가지 상징조형물을 동시에 차등을 두어 선정하기에는 창작비용과 연결되는 작품성 수준의 평가 및 측정, 설치비용의 계상 및 측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공모방식에서 적절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6. 공모방식(안)

- 홍예공원 상징조형물의 조성을 ‘충남을 대표하는 홍예공원’, ‘새로운 충남의 비상’, 등의 상징성을 보여주며 조형미를 갖춘 수준 높은 작품을 선정하여 설치하기에는 여러 난제들이 있으며 이러한 장애 요인은 상황에 적합한 현상공모 방식을 통해 많은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음.
 - 공원에 설치되는 상징조형물은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 설치에 해당되지 않아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설치 전 과정을 시공사에서 진행하기로 함에 따라 조형물 수준이 아닌 설치물 수준으로 계획되었음.
 - 조형물의 현상공모에서 시공까지 통상적으로 300여일 기간이 소요되는데 현재 일정상 2016년 3월에야 준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홍예공원의 준공과 일정을 맞추기 어려움.
 - 여러 작품의 동시 선정하여야하기 때문에 의도한대로 작품 주제가 적정해 배분되어 출품되는지의 문제, 주제에 다른 적합한 작품이 없는 경우, 심사 소요시간 및 여러 점(분야)의 심사에 따른 일관성 있는 판단 결여 등 문제 점을 내포하고 있음.
- 현상공모 방식은 응모자격의 범위에 대한 방안과 디자인(창작과정)과 시공과정을 일괄하거나 구분하여 공모하는 방식이 관건임.
 - 시상금(시공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국단위의 작가, 조형

디자인 업체를 대상으로 공모할 경우, 응모 참여의 저조, 작품 수준 하락이 우려 되므로 상황에 따라 제한공모 방식을 대안으로 마련하여야 함.

- 실제 상징조형물과 관련된 대표적 부작용으로 작품 선정과정의 담합 등 비리와 함께 설치비의 과당 계상이 꼽히고 있으며⁵⁾ 시상금(사업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품의 수준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서는 작품 선정과 시공을 분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여야 함.

〈표9〉 대상지역 제한에 따른 공모방식

유 형	개요 및 장단점	
전국 대상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모에 참여가 가능한 작가 및 조형디자인 업체를 전국으로 함. · 전국 규모에 맞는 대상 및 시상금 등이 확보되어야 함.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넓은 작가 층의 참여로 작품의 수준을 높일 수 있음. · 상대적으로 사전 선정 등 담합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적음.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주 주체에서 요구하는 성격과 다른 작품이 선정될 수 있음. · 심사방식, 심사위원 선정 등에 세밀한 준비가 요구됨.
제한 대상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모에 참여가 가능한 대상을 특정 지역에 제한함. · 지역의 독창성 등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경우 활용이 효과적임.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주 주체에서 요구하는 성격에 맞는 작품이 선정될 수 있음. · 심사과정이 생략되어 소요비용이 절감됨.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한적인 작가 층의 참여로 작품의 수준이 떨어질 수 있음. · 상대적으로 사전 선정 등 담합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높음.

〈표10〉 창작비와 시공비의 구분방식

유 형	개요 및 장단점	
일괄 시공비 (창작비 포함)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된 작품을 제안한 작가(업체)에게 시공권을 주는 방식 · 선정작은 별도의 시상금이 없으나 차점자에게 시상금 수여 경향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작 의도에 부합하는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음. · 별도의 감리가 필요 없고 하자 발생시 책임소재가 명확함.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공비가 과다 계상되어 공사금액이 부풀려질 수 있음. · 작가와 시공업체의 컨소시엄 방식으로 작가가 주도할 수 있음.
창작비 및 시공비 분리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 심사에서 디자인 안만 선정하고 시공은 별도로 진행 · 일괄 시공비 방식과는 심사 선정 항목에서 차이를 보임.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작비와 시공비의 분리로 시공비의 낭비를 막을 수 있음. · 심사과정이 생략되어 소요비용이 절감됨.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래 작품 의도와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음. · 시공과정에서 진행이 매끄럽지 못하며 책임소재가 불분명함.

5) 상징조형물의 가격을 크게 창작비와 설치비로 구분하여 각기 비중을 정하고 있는데 창작비의 한도로 인해 설치비를 과다하게 책정하는 사례가 발생함.

● 설치 예산 확보 정도 및 제작 기간이 충분한지의 여부로 공모방식을 결정할 수 있음.

- 설치 예산의 증액이 되지 않았을 경우 ‘창작비와 시공비 분리’ 방식과 ‘지역 제한’ 방식을 채택하며 증액이 충족되었다면 ‘일괄 시공비’ 방식 및 ‘전국 대상’ 방식을 권장하나 시공비가 과다 책정되는 게 일반적이므로 ‘창작비와 시공비 분리 방식’을 권장함. (창작비는 총 금액의 40%를 넘지 않게 배분되고 있으며, 작품 축소 모형의 제출 여부에 따라 달라짐.)

- 제시 안 : 창작비, 시공비 분리 방식

● 창작비와 시공비를 분리하는 방식으로 공모하였을 때 전체 응모작 중 1, 2, 3 등을 선정하여 순위에 따라 정해진 장소에 설치하며 각기 시상금을 지급하고 디자인 감수권을 부여함.

● 상징조형물과 환경조형물이 혼재된 안을 선택할 경우 공모부문이 분리되어야 하며 심사절차 또한 분리되어 구성되고 진행되어야 함.

〈표11〉 시상금 지급 안 /단위 : 만원

종류 \ 방식	모형 제출		모형 미 제출		비고
	시상금	수량	시상금	수량	
금상	3000	1점	2500	1점	디자인 채택인에 대해서는 디자인 감수권을 부여, 설치 완료 후에 감리비 각 1천만 원 지급
은상	2500	1점	2000	1점	
동상	2000	1점	1500	1점	
시상금 총액	7500	3점	6000	3점	
총액(감리비 포함)	10500	-	9000	-	

● 공모에 응모할 수 있는 제한은 지역제한과 자격제한을 할 수 있음.

- 응모 제한은 작가의 거주지 또는 업체의 소재지를 제한하는 지역제한과 작가 또는 업체의 자격 및 경력을 요구하는 자격 제한을 동시에 할 수 있음.
- 지역제한은 응모할 수 있는 작가의 거주지 및 업체의 소재지를 국내 또는 해외를 포함한 국내로 개방하여 제한하지 않거나 특정한 지역 내로 한정할 수 있음.
- 지역제한을 하지 않는 공동참여 형태인 경우 해당 지역 작가와의 컨소시엄을 권고하는 사례도 있음.

- 자격제한의 경우 제한의 정도를 관련 조형물 당선 경력을 요구하되 연수제한 및 가격 제한을 두고 있음.

〈표12〉 응모 작가 및 업체의 참가 제한 및 배점

유형\항목	세부 구분	내용	비고
지역 제한	국내	지역 제한은 없으나 작가의 국적은 제한할 수 있음.	대규모, 홍보효과
	지역제한	해당 지역 또는 광역권으로 참가를 제한함.	소규모, 작품수준 저하, 선정시 잡음
자격 제한	자격	각급 미술대전 입상작가, 추천 및 초대작가, 심사운영위원	기준이 모호, 선정시 잡음 발생
	당선 경력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일반	요구 사항에 맞는 자격 조건으로 하되 복합적으로 구성
		연도 제한(5년 이내, 10년 이내)	
		액수 제한(단일 액수)	

- 공모에 응모할 수 있는 제한은 사업비의 확보 정도와 추진 기간이 충분한지 여부로 판단하여 정할 수 있음.

- 설치하려는 조형물이 전 국민의 관심을 유도하며 공모과정을 이슈화 할 목적이 있으면 지역제한을 두지 말고 전국 단위로 공모를 하며, 사업비의 확보가 충분하지 않거나 지역에 관한 주제를 다루는 사업의 경우 지역 제한을 두는 것이 사업 진행에 유리함.
- 자격제한은 협회 소속의 직책은 채택하지 말고 당선 경력으로 하되 3년 이내 금액은 본 사업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는 것이 유리함. 다만 자격항목에 있어 보유인력의 점수 산정 때문에 건설사업체 등으로 명시하게 되는데 관련 업체가 다양하여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단순하게 하는 것이 유리함.
- 제시 1안 : 전국 대상 + 3년 이내 2억 이상 정부 및 공공기관 조형물 당선 경력(예산 확보 시)
- 제시 2안 : 지역 제한 + 3년 이내 2억 이상 정부 및 공공기관 조형물 당선 경력(예산 미확보 시)

- 조형물 당선 실적은 응모자격의 가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하고 누적 점수로 평가점수화 하지 않아야 함.

- 당선작을 누적하여 점수화 하는 방식을 채택하면 당선 횟수가 많은 작가나 업체에 유리하게 되어 작품의 상징성이나 심미성의 판단 보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됨.

- 결국 참신한 작가의 등용의 기회는 희박하게 되고 일부 메이저 업체 및 작가이 조형물 시장을 독식하게 되며 결국 유사한 조형물을 양산하는 결과를 낳게 됨.

● 심사위원은 총9명으로 순수미술, 경관 디자인, 건축, 조경 등 전문가 외에 공원 설계 및 감리단, 도의회, 시민단체 인사로 다양하게 구성하며 공정한 심사를 위해 출신 및 거주 지역, 분야 별 3배수의 예비 후보를 확보 함.

- 공모방식 중 지역 제한이 없이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지역 제한을 한 경우는 심사위원 선정을 달리함.
- 공모방식의 방향 또한 충분한 조성 비용의 확보 여부에 달려 있으며 충분한 경우 9인, 그렇지 못한 경우 7인이 적합 함.
- 상설 심사기구인 지역의 미술설치위원회 등의 단독 활용은 배제하여야 함.
- 지역제한 둘 경우 응모가 가능한 지역은 충청권(충남, 대전, 세종)으로 하며 타 지역의 심사위원 후보 중 불참할 경우가 발생할 상황을 대비하여 지역 내에 예비 후보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함.

〈표13〉 전국 공모의 경우 심사위원 구성(안)

소속 /전문 분야	후보 인원	후보 인원	비고
· 대한민국미술대전 관계위원	6	2	조각, 조소 분야
· 충청남도미술대전 관계위원	6	2	조각, 조소 분야
· 충청남도 경관디자인위원	6	2	조각, 조소 분야
· 공원 설계자 및 감리단	3	1	
· 충청남도의회 의원	3	1	관련 분과
· 시민단체, 환경연합, 언론기관	3	1	
*전문가인 경우 조형물 관련 제작 경력자	27	9	

〈표14〉 지역 제한 공모의 경우 심사위원 구성(안)

지역 /전문 분야	후보 인원	후보 인원	비고
· A 지역/타 광역 지자체	6	2	조각, 디자인, 건축 분야
· B 지역/타 광역 지자체	6	2	조각, 디자인, 건축 분야
· 충청남도 지역	9	3	조각, 디자인, 분야
*전문가인 경우 조형물 관련 제작 경력자	21	7	

- 심사항목은 공원조형물 설치 방향에서 전술한 디자인 방향의 항목을 토대로 하여 콘셉트의 구사 여부를 측정하도록 하며 실질적인 작품의 평가에 적합하도록 조정·배점 차등 등이 이루어지도록 함.
 - 축소모형을 제시하는 경우나 시공은 별도로 하는 작품 선정 방식 등에서는 평가 항목이 달라질 수 있음.
- 심사항목 및 배점 비중은 심사위원의 그룹에 따라 상이하게 하는 게 합리적임.
 - 설계 및 시공 경험이 없는 비전문가 그룹의 평점 항목에는 관람자 관점에서 의 평가항목으로 구성되어야 함.
 - 앙케이트(선호도 조사)를 병행 할 때에는 전문가 그룹의 점수 편차를 감안 하여 배점 및 적용 비율을 설계하여야 함.

〈표15〉 심사 항목 및 배점

대항목	평가항목	세부 심사사항	배점
상징성 (30%)	기본 콘셉트 구상	· 도청 이전의 의미와 새로운 비전 · 조형물의 구상 스토리의 적절성	15
	상징성 표현	· 주제의 명료한 전달력 여부 · 주제와 부합되는 형상적 표현	15
심미성 (20%)	창의 및 독창성	· 표절 및 모작, 진부한 표현 여부 · 창의, 독창성 수준 판단	10
	예술 및 조형성	· 재료, 색상, 질감, 디자인, 구성 등 · 상징성의 예술적 표현 수준	10
친밀성 (20%)	방문객과의 친밀감	· 관람객에게 호감을 주는 대상 여부 · 기치하는 형상 및 구성의 여부	10
	장소와의 친밀감	· 장소에 적합한 형태 여부 · 주변과의 조화성 여부	10
친환경성 (10%)	예술 및 조형성	· 장소에 적합한 형태 여부 · 주변과의 조화성 여부	10
지속성 (10%)	유지관리 및 견고성	· 유지관리의 수월성 · 재질 및 구조의 내구성	10
가치성 (10%)	가격 대비 가치성	· 제시한 총사업비 대비 작품 가치성 · 사용 재료, 규모, 조형성의 종합 판단	10
기타 (10%)	평가 항목 외적 고려 사항	· 발표 및 제시안에 대한 가점	10

◆ 참 고 자 료 ◆

- 김현선디자인연구소, 충청도청 이전신도시 공공디자인 개발사업, 2009. 5.
충남발전연구원, 충청도청 신청사 설치계획 수립, 2011. 3. 30., 2012. 5
국민권익위원회, 지자체 공공조형물 무분별한 건립 제동, 2014. 9. 24. 보도자료
그 외 언론 매체 보도 자료.